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7일 수요일 음 8월 21일 (13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16℃, 낮 최고 기온은 22~23℃로 평년과 같거나 조금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1.0~4.0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에 나선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6:33 / 해짐 18:10	달뜸 21:25 / 달짐 11:06
물때	만조 00:46 / 13:46	간조 07:32 / 20: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8/23℃
모레	흐리고 비	19/22℃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높음

월드뉴스

中 왕이 방한 연기… "교류 위해 소통 중"

중국 외교부 "중한관계 양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 당국이 한국과 고위급 교류를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판공실은 6일 왕 국무위원의 방한 일정이 연기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 기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변인 판공실은 "현재 중한관계 발전은 양호하다"며 "양국 고위급 교류는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소통 중"이라며 "만약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있으면 즉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변인 판공실은 방한 연기가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이달 26~29일 열리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왕 국무위원의 방한까지 연기되면서 한국이 미중 외교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외교 당국은 왕 국무위원의 방한을 다음 주쯤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지만 중국 측 사정에 따라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국무위원은 방한뿐 아니라 방일 계획도 함께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아시나요?

강 준 혁
한의학 박사

작년부터 서귀포시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선도 사업 중에 방문 한의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역 내 노인 인구가 많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분야 지역사회통합 돌봄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주거, 돌봄,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방문 한의 진료 서비스는 찾아가는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진맥이나 상담도 하고 이에 따라서 침도 놔드리고 한약을 드리기도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못 했었는데, 일대일로 찾아가는 서비스라서 조심스럽게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고 방문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방문 진료의 목적은 우선 편찮으신 노인분들의 치료에 중점이 있지만, 이외에도 대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일도 중요하다.

하루 종일 혼자 계셔서 고독한 감정뿐 아니라 생활의 불편한 점들을 관내 동사무소나 지역 복지 센터에 전해서 개선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날까지 요양원 신세만 지게 할 것이 아니라 댁에 계시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사시도록 하고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들어갈 국가재원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오래된 만성 질환이고 노령으로 인해 커다란 차도가 안 보이는 질환이지만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개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줌으로써 커다란 만족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몇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보면, 처음 가서 뵀을 땐 허리가 구부러져 펴지 못하고 걸으셨던 분이 지팡이 없이 허리를 펴고 걸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 또 다른 한 경우는 8회 진료가 끝나고 연장을 원하셔서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재방문을 하는 어르신이었다.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달리고 힘이 드셨던 분인데, 방문 진료 기간이 다 끝나서 한참 후에 다시 연락이 오셨다. 그때 치료 받고 많이 좋아지셨는데 한약을 드시고 좋아진 후 다시 한 번 한약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약을 직접 배달해 드리면서 근황을 묻고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이 또한 보람이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 사회이고 개인적으로 독거로 지내는 노인 분들이 많아서 무위고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식들이 많아도 현실적으로는 다들 나가서 생활을 하거나 타지방에서 생활을 해서 노인분들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 고독사란 말이 심심찮게 나오기도 하고 공식적인 명칭은 고립사로 명명한다고 한다. 그만큼 주위에서 관심이 없으면 죽음조차도 바로 알려지지 않을 정도인 것이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한의 진료서비스에 동참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점이 많았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노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하고 민관이 협력하고 점점 다듬어져서 정이 오가는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열린마당

자원순환의 뉴패러다임 '업사이클링'

김 윤 철
오라동 복지환경팀장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전원마을 오라동에는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짜투리 땅을 활용해 주민들의 쉼터와 공원으로 조성한 쌈지공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정실과 연북로에 조성된 쌈지공원은 폐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폐자원이 업사이클링을 통해 어떻게 재탄생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실 쌈지공원은 지난 2019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재활용 도움센터를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에 방치돼 있던 100여평의 짜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만들어졌다. 연북로 쌈지공원은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조성됐다.

쌈지공원에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화분, 팔레트를 활용한 벤치, 폐목재로 만든 그네, 철재로 만든 아치형 산책로, 쓰다 버린 자전거를 활용한 꽃화분 그리고 형형색색 색깔을 입힌 목재로 만든 울타리까지 폐자원을 활용해 공원 전체가 다양한 볼거리와 하나하나 정성들여 만든 작품들로 전시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클린하우스 주변에는 폐타이어를 활용한 이색적인 꽃화분으로 이미지를 개선했고, 꽃과 나무 식재에 쓰이는 흙도 저류지에 있는 흙을 재활용했다.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한다. 산업 문명의 이로움이라는 핑계로 대량생산되고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현대인의 소비문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소중한 자연과 자원을 보전하고 건강하고 순환적인 삶의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업사이클링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점차 정착돼야 할 것이다.

여기는 안전한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

김 상 현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제주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안전한 연동,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연동자치지구대·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경이 협력해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을 조성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게 된다.

2020년 경찰청 국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청은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여성대상 범죄의 발생 위험성 지역에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지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 협의체는 연동자치지구대와 협조해 사전 위험지역에 솔라표지병, 여성안심귀갓길로고젝터, 태양광보안등, 여성안심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셉테드(CPTED)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심야시간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연동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과 함께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범죄취약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1인 가구, 특히 여성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안심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만족도 조사도 병행한다.

'여기는 안전한 여성안심귀갓길입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지역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연동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코코리 입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a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라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농가: 당도를 올리기 위해 10월초부터 3~4일 간격 해피한그린 3병 + 글루칼2포를 1,000ℓ(50말)에 3번 엽면시비
양배추·브로콜리·마늘·감자·당근:
※ 파종이 늦은 농가는 잘커진액 5ℓ + 썰파고 8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찬바람이 불기전(10월 중 · 하순) 희토락F 5ℓ + 썰파고 8ℓ + V패스 4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양배추, 프로콜리는 불병 · 뿌리혹병 예방, 감자는 시들음병 예방
제품소개
■ 해피한 그린 : 희토류가 들어 있어 당 상승 효과
■ 글루칼 : 글루콘산이 99.9% 들어있는 포도당 칼슘
■ 썰파고 : 제독처리된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무름병, 흰가루병, 노균병, 탄저병, 녹병 등)
■ V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양배추 불병, 뿌리혹병, 밑썩음병 등)
■ 잘커진액 :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만든 영양제로 흡수율이 87~88%나 되는 영양생장 촉진제
■ 희토락F : 희토류와 부식산 및 철분이 들어있는 비대촉진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